

96. 4. 4

고정관념을 깬다 ⑭ 서울대 동성애자모임 정현수씨

“나는 레즈비언” 당당한 인권운동

김미경 기자

서울대 동성애자모임은 동성애자들이 되찾아야 할 인권을 100점으로 정하고 해마다 점수를 매겨 모임 이름을 바꿔 나간다. 올해 이름은 '마음 003'. 지난해 처음 만들어질 때는 '마음 001'이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점수가 지난 1년 동안 2점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마음 003'의 대표간사 정현수(21·서울대 2학년)씨는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몇 안되는 여성 중 하나다.

“정상이 아니면 무조건 차별 받아야 합니까? 정상이라는 것은 단지 %가 많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소수는 무조건 비정상이라고 보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물이해와 '박해'는 소수자를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씨는 동성애자운동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의 주장에 대해 그 원인을 생각해보기도 전에 무시해버리는 사회분위기를 바꾸자는 뜻도 담겨 있다고 강조한다.

“제가 마음에 깊이 두고 있었던 사람이 우연히 여성이었던 거죠. 그런 다른 느낌을 왜 억지로 무시해야 합니까?”

정씨는 지난해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동성애자모임을 열심히 찾아다니다 몇명 뜻있는 선배들과 함께 아예 단체를 만들었다. 그는 그동안 동성애자 모임이라면 어디든 쫓아다니고 지난해 여름에는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레즈비언 회의에도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했을 정도로 열심이다.

물론 정씨도 '서구의 쓰레기 문화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 '우리 사회에는 뿌리도 없는 운동이 아



정씨는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 이전 우리사회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규 기자

니냐' '대학사회에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른 할 일도 많은데 하필이면 동성애자운동이나' 등등의 비판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만은 아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나름대로의 뿌리찾기 작업이 이뤄져야 하겠지요. 상상 이상으로 성적 취향의 다양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성애' 중심의 고정관념은 굳건한 만큼 확실한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 동성애자모임 연합체를 만들어나가는 데도 한몫을 토틈했던 정씨는 동성애자운동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인권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